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 32:9-10/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 *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강조 -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필수적인 것.
 -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벰엘에서 야곱의 보호와 귀환을 보장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
 - '주의 종에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주종 관계를 명확히 함. 자기 겸손은 역설적으로 사람과 하나님도 이길 것.
 -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작다, 하찮다)': 하나님이 베푸는 것을 받을 가치가 자신에게 있는지 의심
 - 에서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암시, 자신이 작은 아들임을 고백.
 - '지팡이만 가지고': 가족을 번식시킬 때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가리키기도 함.
- 32:11-12/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있음
 - 야곱의 재주는 그저 멀리 도망가는 것 뿐이며 하나님만이 야곱을 구원하실 수 있음.
 -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צל': 시편 기자의 애가를 회상시키는 표현.
 -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에서의 일방적인 복수로 인한 가족들의 학살을 두려워함.
 -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주님이 벰엘에서 주신 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의지.

2) 에서를 위한 야곱의 선물 (32:13-21)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 32:13/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 * 야곱은 전에 도둑질했던 축복의 유익을 보상(33:11) - 그러나 야곱의 선택된 운명은 변함이 없음.
 - * 그러나 에서의 분노는 선물이 아닌 야곱의 겸손함으로 누그러뜨림.
- 32:14-15/ '암염소가 이백이요...': 선택한 짐승의 규모와 수는 야곱이 얻은 부를 나타냄.
- 32:16-18/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가서': 늘 타인의 앞에 있었던 야곱이 뒤로 물러남.
 - '주의 종...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표현들.
 -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급히 쫓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
- 32:19-20/ '둘째와 셋째': 소식을 반복해서 전하도록 함 - 누적된 짐승으로 둘러싸이게 함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
 - '감정을 풀 후에': '속죄, 화해를 이루다(킵페르)', '그의 얼굴을 덮다'-에서가 야곱의 수치를 보지 못함.
 - '선물', '속죄', '받아들였다' 등 제의적인 용어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암시일 수도 있음.
 - '대면하면': 브니엘 사건과 에서를 만날 것을 예견, 가인-아벨 사건을 연상
- 32:21/ '그(그의 얼굴)는 무리(진영) 가운데서': 마하나심을 떠올리게 함.

3) 복을 얻기 위한 야곱의 쟁투 (32:22-32)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 32:22-23/ '두 아내와 여종과 열한 아들을... 압복 나무를 건널 새': 즉흥적으로 선물을 앞세워 보내는 전략을 취함.
 * 다나가 빠진 것은 저자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기 때문.
 * 자신보다 먼저 가족들을 보낸 이유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모종의 동정심 조성을 위함.
- 32:24-25/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 야곱은 끝내 압복강을 건너지 못함.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씨름(바예아베크)'은 '압복', '야곱'에 대한 언어 유희.
 -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의 이기적인 성품의 변화를 강조.
 '날이 새도록': 둘의 뛰어난 지구력, 야곱을 특징짓는 육신의 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이겼으나 강력한 타격으로 부상을 입음.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찢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 32:26/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날이 밝아 정체가 드러나면 불리해질 낯선 사람-신적 존재를 암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 야곱은 이 남자가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천사)임을 인지.
 *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복을 받게 될 기회를 얻음.
- 32:27-29/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대신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암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사람과 겨루어 이긴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모호함.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은 자신이 이긴 대상의 이름을 알지 못함.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삭에게 받아낸 축복의 의미는 변색되었지만 적법성은 무효화되지 않음.
- 32:30-31/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천사-호세아서)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됨.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졌다는 의미. 에서와의 만남의 전조.
- 32:32/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자의 시대에 알려진 히브리의 음식 관습; 야곱-이스라엘에 대한 경의의 표현.

10. 회복의 선물과 세겜으로의 귀환

* 야곱에게 일어난 도덕적 변화의 조짐

- 1) 32장에서는 종과 가족을 앞세워 보낸 반면, 지금 야곱은 무리를 이끌고 스스로 먼저 위험을 맞으려 함.
- 2) 야곱은 자신이 밋단아람에서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때문임을 인정하여, 자신을 자랑하기를 거부.
- 3) 자신의 후회를 드러내는 선물을 제시하여 자신이 축복을 흠뻑음을 암시, 형에게 복종할 것을 입증.

1)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33:1-4)

-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33:1-2/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접근하는 무리를 떠올리는 생생한 묘사.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형제 간의 갈등을 암시.
- 33: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이 무리를 호위-야곱의 변화.
'일곱 번 땅에 굽히며': * 이삭의 축복과는 상반된 행동, 요셉의 꿈에 대한 전조.
* 자신의 성공이 우월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반응.
* 에서에게 종속된 자임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포함(10절).
- 33:4/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 포옹과 입맞춤은 강한 가족 연대감의 표현.
* 야곱이 브니엘에서 겪은 변화와 관계있는 변화가 에서에게도 일어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아비멜렉, 라반과는 달리 에서의 용서는 순수한 것.
* '입맞춤', '목'은 둘 사이의 분열을 조장한 악한 행동을 연상시킴.

2)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다 (33:5-15)

-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 33:5/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거느린 무리에 대한 에서의 질문.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
- 33:6-7/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나와와 절하니': 야곱이 나눈 순서에 따라 에서에게 절함(요셉-라헬만 바뀜).
- 33:8-9/ '이 때는 무슨 까닭이나': 사자들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이 이뤄진 상태-분명한 답을 원한 것.
'내 동생아... 내 소유는 내게 두라': *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유일하게 야곱을 '동생'으로 부름.
* 장자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
- 33:10-11/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에서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브니엘에서 만난 '그 사람'과 대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발견했고)': * 노아와 모세가 누린 지위; 희생제물을 받아들인다는 제의용어.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에서가 거절하며 내세운 논지(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에 대한 대응.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표지는 에서가 야곱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 예물(비르카티-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흠친 축복을 돌려주려는 의도를 강조?

-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 33:12/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려 함. 에서가 무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의미.
- 33:13-14/ '자식들은 연약하고... 모든 때가 죽으리니': 아이들이나 짐승 새끼들의 건강을 우려
'앞서 가소서... 천천히... 세일로 가서': 에서의 무리가 앞장서고 자신들은 천천히 세일로 이동할 것을 제안.
- 33:15/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에서의 마지막 제안도 부드럽게 거절.

3) 야곱과 에서가 작별하다 (33:16-20)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 33:16-17/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평화로운 이별 - 조약을 맺고 헤어진 라반과 비교.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야곱의 일시적인 거처. 아이들, 짐승 새끼들을 위한 휴식.
* 함께 세일로 나가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세일이 아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
나중에 에서가 주도하여 따로 거하게 됨(36:6-7).
- 33:18/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라반과 에서의 잠재적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히 여정이 끝남.
'세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장막을 친 곳이며 제단을 세웠음(창 12:6-9).
- 33:19/ '장막을 친 밭을... 백 크시타에 샀으며': 야곱도 아브라함과 같이 매장지로 구입한 것(수 24:32).
- 33:20/ '제단을 쌓고': * 야곱-에서 갈등의 마지막 행동이자 야곱 귀한 이후의 첫 행동. 아브라함-이삭도 마찬가지.
* '쌓고(세우고)' 벤엘의 신현을 묘사.
'엘엘로헤 이스라엘(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과,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이야기의 한 단락을 끝냄.

11. 디나, 속임수, 히위 족속과의 갈등(34:1-31)

* 주요 메시지

- 1)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에게로 관심의 전환
- 2) 에서-야곱 갈등의 해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
- 3) 주님의 구속 역사는 이 나라의 조상들의 도덕적 실패에도 계속됨.
- 4) 26장 이삭과 아비멜렉 사건과의 대조.

1) 세겜이 디나를 추행하다 (34:1-4)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 34:1/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 시므온, 레위와 어머니가 같음 - 중요한 동기.
* '딸(바트)': 열네 번 등장-중심 단어. 두 족속 간의 통혼에서 언급됨.
'그 땅의 딸들': 히위 족속 간의 통혼 문제를 예견.
'나갔더니': 가나안 여인들의 관습을 관찰하려고 아버지의 거처에서 벗어남.
- 34:2/ '히위 족속': 기브온의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에 속임수를 써서 평화를 확보했지만 지배를 받게 됨(수 9:21-23).
'하물의 아들... 세겜': 후대 성읍 세겜 거주민은 설립자인 하물을 자랑스러워함(삿 9:28) - 존경 받는 지위.
'세겜이 그를 보고(취하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로 '취했던' 기사를 회상.
'강간하여': '눅히고 욕보였다'.
- 34:3/ '마음이 깊이... 연연하여... 사랑하여... 마음을 위로하고': 디나를 향한 세겜의 열정 - 암논과의 대조.
- 34:4/ '이 소녀': 디나의 연소함과 남자들이 손에 쥘 협상용 카드에 불과함을 암시.